

초등학교 통합교육과정 ‘즐거운 생활’에서의 음악교육에 관한 인식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Music Education in ‘Pleasant life’ in the Integrated Curriculum of Elementary School

양소영* · 임은정** · 이선미*** · 박지영**** · 송정주*****

Sohyeong Yang · Eunjung Lim · Seonmi Lee · Jiyoung Park · Jeongju Song

초록 본 연구는 현행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교육과정 ‘즐거운 생활’에 편성된 음악과의 교육 실태 분석과 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조사를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문헌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음악교육의 중요성과 통합교과 교육과정 ‘즐거운 생활’의 변천 과정 및 교과 내용을 분석하였고, 설문조사는 4개의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총 9개의 설문 문항을 개발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설문문항은 예비조사연구를 통해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외부 전문가 자문을 적용하여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하여 1,179명의 설문 응답 결과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육과정 ‘즐거운 생활’은 음악과의 교육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초등학교 3학년 이후 음악 교과와의 연계성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바람직한 음악적 발달과 학습을 위해서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과를 분리하여 교과 시간과 활동 내용의 확장이 필요하다. 또한, 위계 따른 음악 교과 내용과 정서 및 인성 교육을 포괄하는 학습 내용 구성으로 삶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학습이 요구된다.

주제어: 통합교과 교육과정, 음악 교과교육, 즐거운 생활, 초등1-2학년 음악교과, 초등1-2학년 음악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of music education in the current integrated curriculum called ‘Pleasant life’ for 1st and 2nd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as well as to assess the community's perception of it. The literature review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music education in the early elementary school years, the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curriculum ‘Pleasant life,’ and the curriculum's contents. A total of 9 questionnaire items centered on four main areas were created and assessed for appropriateness and validity through a pilot study and external expert advice. Researchers analyzed 1,179 questionnaire responses collected through online social network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integrated curriculum ‘Pleasant life’ did not adequately include the educational purpose and content of music educations, with a noticeable decrease in connection to the music subject after 3rd grade. This study recommends separating the music subject from ‘Pleasant life’ for better musical development in younger elementary school grades. It also advocates for increased subject time and activity content, and the promotion of an appreciation for music through a curriculum that integrates emotion and character education.

Key words: integrated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music subject, ‘Pleasant life’ curriculum, music subject for grades 1-2, music education for grades 1-2

* First author, E-mail: pianosy@snue.ac.kr

Assistant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96 Sechojungang-ro, Seocho-gu, Seoul, Korea

** Corresponding author, E-mail: ejlim@jeju.ac.kr

Assistant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102 Jejudaehak-ro, Jeju-si, Korea

*** Co-author, E-mail: with1208@gmail.com

Invited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152 Jukjeon-ro, Suji-gu, Yongin-si, Gyeonggi-do, Korea

**** Co-author, E-mail: whang1533@gmail.com

Specially Appointed Professor, Suwon University, 17 Wauan-gil, Bongdam-eup, Hwaseong-si, Gyeonggi-do, Korea

***** Co-author, E-mail: j-jduck@hanmail.net

Teacher, Daegu Suchang Elementary School, 30 Dalseong-ro 22-gil, Jung-gu, Daegu, Korea

I. 서론

초등학교 1~2학년 음악 교과가 ‘통합교과’로 바뀐 지 43년이 지나고 있다. 1981년 문교부는 제4차 교육과정의 교과 통합을 추진하면서 초등학교 1, 2학년 음악과 교육과정을 제3차 교육과정과 같이 분리된 교육과정으로 유지하되, 교과 구성에서만 통합하는 불완전 통합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제5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1~2학년 ‘음악과’ 교육과정이 통합교과 교육과정으로 흡수 편성되면서, 초등학교 1~2학년 ‘음악과’는 교육 과정에 더는 편성되지 않았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통합교과는 ‘활동 주제’가 도입되고,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통합단원’이 적용되었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주제별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활용되었다. 2022 개정 통합교육과정은 ‘지금 · 여기 · 우리 삶’을 지향점으로 하여 ‘놀이 경험’을 도입하고 ‘주제 개발권’이라는 용어를 통해 교사와 학생이 개발한 주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재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서 COVID-19 이후 공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교실 혁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교육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여 학생의 ‘마음 건강’을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형 ‘사회정서’ 교육 프로그램 추진, 정신건강 위기 선별 검사도구 개발 및 적용, 학생 정신건강지원 전문기관 연계한 상담, 교육부 내 전담 부서 신설 및 근거 법률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교육부는 학생의 ‘마음 건강’을 강조하며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위한 체육 · 예술 ·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협력적 소통 · 배려 등 인성 역량 함양을 위해 학생 예술동아리 운영 확대 및 학교 오케스트라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의 디지털 · 인공지능 역량의 활성화를 강화하는 지능정보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정서 순화와 인격 형성의 여건을 마련하는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 플라톤의 에토스론(Ethos)에 근거한 수사학에 ‘음악’이 포함될 만큼, 음악이 사람의 인격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증명되었다. 노주희(Rho, 2016)는 치유로서 음악교육을 언급하면서 예술교육은 본질과 치유적으로, 감성적 인식을 돕고 창의적 활동을 강화하여 음악을 통해 자기성찰적 사고를 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한다. 양소영(Yang, 2022)은 치유로서 학교 음악교육의 역할을 살펴보는 데 있어 ‘음악 치료’의 목표는 대부분 음악 치료자에 의해 치료 또는 대상자의 건강을 위해 수행되었으나 ‘음악 치유’는 교사를 통해 음악 수업에서 학생의 정서적 지원을 염두에 둔다고 강조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의 아름다움이나 가치를 인식하고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감성을 기른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교육 목표를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음악교육은 학생의 음악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한 미적 교육이라는 내재적 목표와 함께 학생의 정신적 고양과 인간 교육으로써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든(Gordon)은 0세에서 만 9세까지의 음악적 환경과 경험의 질에 따라 한 인간의 음악적 발전 가능성이 정해진다고 강조하고, 짐머만(Zimmerman)은 음악 능력 발달단계를 나눈 어린이가 7~8세가 되면 대부분 음높이와 리듬을 연계하여 인식하고, 음악적 경험의 질과 수준, 경험의 지속성에 따라 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Seung & Chung, 2021).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3·4학년을 연계하면서 학생의 음악성과 심성을 계발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초등학교에서 40년 이상 음악과를 통합교과로 묶어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자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교육과정 '즐거은 생활'에 편성된 음악 교과 내용 및 구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조사를 위해 문헌 연구와 설문 조사의 결과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학교 음악 교과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앞으로 음악 교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교육과정 '즐거은 생활'에 편성된 음악 교과 교육 실태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조사를 위해 문헌연구와 설문 문항 개발 및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교육과정에서 통합교과와 음악교과의 변천 과정, 초등 저학년 음악교육의 중요성, 즐거은 생활의 음악교과 내용을 탐색하였다. 설문 문항은 통합교과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 교과 교육의 실태 인식, 초등학교 저학년 음악 교과 교육의 중요성 인식, 통합교과에서 음악 교과의 분리 및 학습 확대의 필요성 인식 등 4개 항목을 우선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총 9개의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최종 개발된 총 9개의 설문 문항은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하여 무작위 표집을 통해 다양한 사회구성원에게 배포되었으며, 2024년 1월 25일~2024년 2월 2일 동안 실시되었다. 총 1,179명의 참여자가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실시간 온라인으로 설문 결과가 수집되어 통계 분석되었다.

2. 분석 방법

설문 문항은 통합교과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 교과 교육의 실태 인식, 초등학교 저학년 음악 교과 교육의 중요성 인식, 통합교과에서 음악 교과의 분리 및 학습 확대의 필요성 인식 등 4개 항목을 우선 선정하여 초기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초기 설문 문항은 예비 조사연구(pilot study)를 통해 설문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질문의 난이도를 조정하였으며, 외부 전문가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과 분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설문 문항을 최종 개발하였다. 총 1,179명의 참여자가 응답한 설문 결과는 온라인으로 결과를 수집하여 통계 분석되었으며, 문항 신뢰도는 관계된 문항 응답 결과의 상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Ⅲ. 이론적 배경

1. 교육과정에서 통합교과의 변천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의 통합교과는 1981년 도입된 제4차 교육과정부터 시작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활동 중심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흥미를 유발하여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과정을 채택했다(Lim, E. J., Kim, S. J., & Song, J. J., 2024). 그러나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각 분과 교과를 하나로 묶어 바른 생활(국어, 도덕, 사회), 슬기로운 생활(자연, 산수), 즐거운 생활(음악, 미술, 체육) 등 단순한 교과 통합 형태였다. 이는 본래 분과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교과서 명칭만 통합한 것으로, 목표, 내용, 지도, 평가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1987). 이처럼 초기에는 교과서 통합이 교육과정 통합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졌다(Park et al., 2004).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처음으로 통합교과 교육과정이 등장하였다. 이 교육과정의 특징은 제4차 교육과정의 바른 생활 교과에 포함되었던 국어와 슬기로운 생활 교과에 포함되었던 산수가 각각 독립교과로 분리된 점이다. 그리고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바른 생활에 포함되었던 사회가 슬기로운 생활로 편입되는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교육과정 차원에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를 도입하여, 학생 생활 중심으로 다양한 교과 내용을 통합적으로 다루려는 시도의 목적으로 볼 수 있다(Jo, 2023). 그러나 이 시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음악과, 미술과, 체육과 등의 교과 명칭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통합교과 대상이 원칙 없이 바뀌는 것에 대해 권덕원(Kwon, 2018)은 ‘통합 교과로는 처음부터 학문적 토대가 빈약하고, 합리성을 결여한 이론’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후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생활 경험 학습 활동 중심의 주제에 의한 탈교과적인 통합으로 재정립하였다(Yoo, 2005). 이 시기에는 기존에 어느 교과와 통합임을 보여주며 교과의 구분선을 명확히 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활동 중심의 주제에 따라 교과와 교과 간의 경계를 넘어 학생들의 활동과 흥미를 중심으로 학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Park, 2012). 제4차 교육과정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초등학교 1~2학년의 통합교과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1> The evolution of integrated subjects (4th~7th)

Subject	4th	5th	6th	7th
Korean language	Disciplined life	Korean language	Korean language	Korean language Mathematics Disciplined life Wise life Pleasant life
Ethics		Disciplined life	Disciplined life	
Social studies			Wise life	
Science	Wise life	Wise life		
Arithmetic		Arithmetic	Mathematics	
Music	Pleasant life	Pleasant life	Pleasant life	
Art				
Physical education				

이어서 2007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에서는 통합교과의 내용 체계를 주제 중심으로 재정립하였으며, 대주제, 활동 주제, 제재 요소로 분화되는 체제로 구성하고자 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07). 그러나 이들 세 가지 수준의 주제는 통합교과마다 종류와 수가 일정하지 않았다(Park, 2012). 또한, 2007 개정 이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을 구분하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이때부터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은 교과 편제상에 교과명은 있으나, 교과서는 없는 교과가 되었다(Kwon,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국가교육과정은 일관된 주제를 제시하였다. 현재 2022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 제시된 국가 교육과정 주제를 폐지하고, '지금 · 여기 · 우리 삶'을 공통 역량으로 설정하며, 탈학문적 질문을 반영하여 영역과 핵심 아이디어를 설정한 점이다(Jo, 2023).

이러한 변화의 연속선상에서, 제4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초등학교 1, 2학년의 통합교과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통합교과의 구성과 내용은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원천 교과의 기본적인 성격과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2.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과 교육의 변천

제4차 교육과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즐거운 생활’의 음악 내용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음악, 미술, 체육의 교과가 독립적으로 교육과정에 존재하였으므로 ‘즐거운 생활’은 세 교과가 한 권의 책으로 통합된 수준이었다. 이 시기는 기존 교과를 기반으로 한 통합이었기에 음악과에서 제시된 학년별 내용으로 음악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1, 2학년의 경우 ‘청각에 의하여 악곡의 구성 요소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게 하며, 악보에 의한 학습의 바탕을 마련하도록 한다’, ‘청각에 의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감상하는 태도 기르다’를 주요 공통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1학년은 모방을 통해 바른 창법과 주법을 익히며, 개성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데 중점을 두고, 2학년은 개성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 능력’, ‘표현 능력’, ‘감상 능력’의 세 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별로 하위 범주를 설정하였다. 1학년과 2학년에서는 기본 능력에 리듬, 가락, 화음, 형식, 빠르기, 셈여림, 음색 등 7가지 요소를 포함하며, 표현 능력은 가창, 기악, 창작을 다루었다. 감상 능력은 1학년에서는 리듬과 가락의 변화, 악곡의 종류와 연주 형태에 흥미 느끼기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2학년에서는 악기의 음색에 대해서도 추가로 다루었다(Ministry of Education, 1981).

제5차 교육과정부터는 교과 명칭이 ‘즐거운 생활’로 변경되었으며, 교과 목표에 ‘즐거운 놀이 중심의 학습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음악교육 보다 놀이를 핵심 요소로 삼았다. 교육 내용은 ‘신체 활동’, ‘표현 활동’, ‘감상 활동’으로 세 영역으로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영역별 주요 음악 내용으로는 노래에 맞추어 간단한 놀이하기 등의 신체 활동, 가사의 뜻을 살려 노래 부르기 등의 표현 활동, 가락을 듣고 신체적 반응을 하면서 즐기고 그 특징을 느끼기 등의 감상 활동이 포함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1987). 제6차 교육과정에서도 신체 활동, 표현 활동, 감상 활동을 기반으로 한 놀이와 표현 중심의 활동 구성에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활동 영역의 내용을 보면, 화음, 형식, 빠르기, 음색 등 음악 개념적 요소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Ju, 2024).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즐거운 생활과의 내용 영역을 ‘놀이와 표현’, ‘감상’, ‘이해’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07). 이에 따라 영역별 음악 내용 요소의 일부를 살펴보면 1학년의 경우 악기 놀이하기, 그림 악보를 보며 리듬 합주하기 등이, 2학년의 경우 노래에 어울리게 리듬 합주하기 등이 놀이와 표현 활동에 포함되었다. 감상 활동으로는 음악회에서 좋은 점, 재미있는 점 찾기 등의 활동이 제시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해 영역에 ‘음악적 요소 이해하기’라는 세부 항목이 제시된 점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음악적 요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음악적 사항이 반영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1997).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즐거운 생활과 내용 체계는 학년별로 대주제와 활동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활동 주제별로 하위 요소가 제시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07). 그러나 일부 대주제와 활동 주제 간의 연계성이 음악 교육적 내용과 관련성이 부족한 때도 있었다. 예를 들어 '가족과 친구'와 같은 대주제에 '전래동요 부르기'와 같은 활동 주제를 제시한 것이다. 하위 요소에 '가족이나 친구와 관련된 전래 동요 부르기'가 제시되어 있지만, 대주제와 활동 주제만으로는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즐거운 생활 교과는 전반적으로 음악적 내용을 활동 주제 안에 배치함으로써, 음악 활동이 양적으로 풍부하게 반영된 통합 교과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다(Ju, 2024).

이에 이어 2009 개정 즐거운 생활과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와 나', '봄', '가족', '여름', '이웃', '가을', '우리나라', '겨울' 등 8개의 대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11). 이로 인해 음악 교과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교과 개념이나 원리를 통합적으로 제시하여 음악과 관련된 학습이 소홀해졌다(Jang, 2014). 교과서에는 일부 음악 관련 제재곡과 활동이 포함되었으나 음악 교과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놀이하기', '표현하기', '감상하기'의 세 가지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주로 주제나 제재와 관련된 노래 부르기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Kim, 2018).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탈학문적 질문 형태를 도입하며, 음악적 표현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이러한 변화는 '놀이 경험 중심 교과'를 지향하며, 음악 교과 관련 내용과 교육 목표의 명확한 명시가 부족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의 변화에서 살펴보면,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육은 기본 능력에서 출발하여 점차 활동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최근에는 놀이 경험 중심으로 변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음악교육의 근본적인 내용과 교육 목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교육은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에는 음악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와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3. 초등학교 저학년 음악교육의 중요성

초등 저학년(1~2학년)은 만 6세~8세에 해당하며, 피아제(J. Piaget, 1886~1980)의 전조작기(만 2세~7세)와 구체적 조작기(만 7세~11세)에 걸쳐 있는 시기이다. 전조작기는 자아중심적 특성이 있어 논리적 사고가 어렵다. 즉, 자기 입장에서 사고하고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구체적 조작기는 구체적인 사물과 행위를 통해서만 체계

적으로 사고하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인지하는 특성이 있다. 이 시기는 전조작기와 달리 자아중심적 특성에서 벗어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Lim et al, 2024). 피아제가 인간의 인지발달 단계를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등 총 4단계로 제시한 것과 같이, 짐머만(Zimmerman), 스완윅(Swanwich)과 틸만(Tillman), 하그리브스(Hargreaves)와 같은 음악학자들을 비롯하여 가드너(Gardner)도 연령에 따른 음악 능력 발달단계를 제시하고 있다(Seung & Chung, 2021). 이는 인간의 발달 단계에 따라 음악 능력도 단계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을 뜻한다.

먼저,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에 따라 음악 발달단계를 제시한 짐머만은 5~6세에 일정박을 유지할 수 있고 6~7세에 청각 지각 능력이 발달한다고 하였다. 6~8세에는 선율 지각 능력이 향상되며 6~9세에 음정을 구별하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특히 8세에는 조정 감각이 현저하게 발달하며 청각 지각이 안정화될 뿐만 아니라 화성 지각 능력 발달에 결정적인 시작 시기라고 하였다. 8~9세에는 조성 기억(tonal memory) 능력이 향상되며 9세에는 음악 보존 능력이 안정된다고 하였다. 이에 짐머만은 리듬패턴, 선율 패턴과 같은 음악적 경험을 9세 이전에 다양하게 제공해야 하며 8세경부터는 간단한 화음 학습을 하고, 조성 기억을 돕기 위한 음악 활동을 강조하였다(Seung & Chung, 2021).

스완윅과 틸만(Swanwich & Tillman, 1986)은 연령에 따른 음악적 사고 발달 과정을 숙달(mastery, 0~4세), 모방(imitation, 4~9세), 상상(imagination, 9~15세), 메타인지(metacognition, 15세~)로 나누었는데, 그중 모방이 4~9세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 아동은 자기중심의 개인적 모방(personal imitation)에서 벗어나 음악적 표현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는 타인의 음악적 표현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여 타인의 표현을 모방 즉, 자신이 속한 집단의 리듬, 박자, 가락 등 관습적 표현을 모방하며 스스로 음악의 빠르기나 강세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하그리브스는 감각 운동적 단계(sensorimotor phase, 0~2세), 형상 표현 단계(figural phase, 2~5세), 도식적 단계(schematic phase, 5~8세), 규칙 체계적 단계(rule systems phase, 8~15세), 전문적 단계(professional phase, 15세~)로 나누어 음악과 예술적 능력의 발달 단계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도식적 단계와 규칙 체계적 단계의 초반이 초등 1~2학년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아동은 자신의 표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관습화하려는 성향을 띤다. 가락의 특징을 인식하고 완성된 형태의 가락을 기억하여 부를 수 있으며 관습적 음악 어법에 대하여 이해하게 된다(Seung & Chung, 2021).

가드너는 예술적 발달단계를 전관습적 단계(preconventional stage, 0~7세), 관습적 단계(conventional stage, 7~13세), 후관습적 단계(post-conventional stage, 13세~)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전관습적 단계의 후반과 관습적 단계의 초반에 걸쳐 있는 초등 저학년의 경우, 하그리브스와 같이 자신이 속한 문화권의 관습적 어법을 습득하고, 장 2도와 장·단 3도, 완전 4도의 짧은 가락 패턴 및 익숙한 노래 일부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Kwon et al, 2017).

이처럼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청각적 능력이 발달하여 자신이 속한 문화의 관습적 음악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학자에 따라 음악 능력 발달을 구분하는 연령 및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음악 능력의 발달이 단계적·지속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발달 단계에서 다양한 경험의 축적은 다음 단계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초등 저학년 시기에 다양한 음악을 경험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든(Gordon, 1927~2015)도 태어나서 만 9세까지의 음악적 환경과 경험의 질에 따라 한 인간의 음악적 발전 가능성이 정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청각각이 예민하게 발달하는 시기인 초등 저학년 때, 이들의 음악적 능력 향상 및 향후 삶에서 음악을 향유 할 수 있도록 발달단계에 맞는 음악 경험 및 교육이 요구된다.

4. 즐거운 생활의 음악 교과 교육 내용

음악이 즐거운 생활로 통합되고 난 후 교육계에서는 교육과정 체제 한계, 음악학습의 구조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박소영 등(Park, S. Y., Lee, K. E., & You, J. A., 2004)은 음악학습통합 방식과 내용 구성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함희주(Ham, 2010)는 즐거운 생활 체제가 음악학습에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김은주(Kim, 2019)는 즐거운 생활의 교육과정과 음악과의 교육과정이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연구에서 밝혔다. 이 밖에도 권덕원(Kwon, 2018)은 즐거운 생활과 내에서 국악의 핵심을 다루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통합교과의 해체와 음악 교과의 독립만이 국악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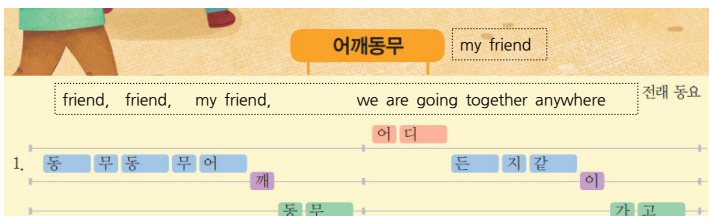
2022 개정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이라는 단어가 두 번 제시된다. 교육과정 설계 개요에 '즐거은 생활과는 신체적 표현, 음악적 표현, 조형적 표현 등 기능 훈련 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라고 하였고, 교수·학습 및 평가 항목 중 (자) 항목에 '누리과정의 신체운동·건강, 예술경험 등의 내용 영역과 초등학교 3학년 이후 체육과, 음악과, 미술과 교육과정 등과의 연계를 고려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음악적 표현 활동을 기능 훈련 중심으로 폄하하고 지양하면서 3학년의 음악과 교육과정과 연계를 고려한다는 것은 즐거운 생활의 교육과정 체제가 설계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이미 문제 제기된 이전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제외하고, 2022 개정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을 구현한 통합교과 중 1학년 1학기 '학교'·'사람들'·'우리나라'·'탐험'과 2학년 1학기 '나'·'자연'·'마을'·'세계'에 수록된 음악 관련 제재곡과 활동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 수준에 맞지 않은 음악 요소가 포함된 제재곡이 많다. 초등학교 1~2학년에

서 다루어야 할 음악 요소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음악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박, 장단, 음의 길고 짧음, 음의 높고 낮음, 빠르기, 음색 등 기초 개념 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노랫말 바꾸기, 리듬꼴 바꾸기 등의 심화 활동은 이러한 음악 기초 개념의 형성이 선행되었을 때 의미 있는 음악학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복잡하고 다채로운 리듬패턴의 악곡, 단음계의 악곡, 두도막형식 이상의 지나치게 긴 악곡은 음악의 즐거움을 통해 흥미를 느껴야 할 시기의 학습자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 음악학습 단계가 생략된 활동이 많다는 것이다. 교과서에 활동 지시문이 대부분 제시되지 않으므로 지도서를 보지 않으면 활동의 단계를 추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서의 활동 단계를 보면 ‘노래 듣기’, ‘노래 부르기’, ‘노랫말 바꾸어 부르기’로 여전히 활동의 단계를 체계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 세부 활동 서술에도 ‘노래 듣기’와 ‘노래 부르기’ 사이에 ‘노래 익히기’ 단계를 생략하였고, ‘노랫말 바꾸어 부르기’를 위해 선행되고 고려해야 할 ‘박’, ‘박자’, ‘리듬꼴’ 등의 음악 요소 학습 또한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악 요소의 기초 학습이 생략된 채 이루어지는 ‘노래 익히기’, ‘리듬 연주하기’, ‘노랫말 바꾸기’ 등의 활동은 유의미한 음악적 결과물을 산출할 수 없다.

셋째, 음악 요소가 드러나지 않은 악보의 사용과 일관성 없는 기보 방식의 문제이다.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 수록된 악보는 그림 악보, 가로 정간보의 말붙임새 악보가 주를 이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랫말만 수록해 놓은 사례도 있으나 어떠한 음악적 정보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악보로 볼 수 없다. 또한, 그림 악보도 마디나 장단의 주기, 음정에 관한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도서에 오선보를 수록하기도 하였으나 멀티미디어 자료에는 오선보의 제시 없이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구현해 놓아 학생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음의 높낮이, 음의 길고 짧음 등의 시각적 정보를 전달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Figure 1] 1st grade 1 Integrated textbook 'picture score'

넷째, 학년 내 · 학년 간 음악 활동의 연계와 위계가 고려되지 않아 결국 3학년 이후의 음악과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통합교과 1-1학기와 2-1학기의 즐거운 생활과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곡과 3학년 음악과 교육과정을 비교해 보면 음악 활동이

학년 내와 학년 간의 연계와 위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Table 2> An analysis of songs from integrated textbooks for 1st and 2nd grade and songs from music textbooks for 3rd and 4th g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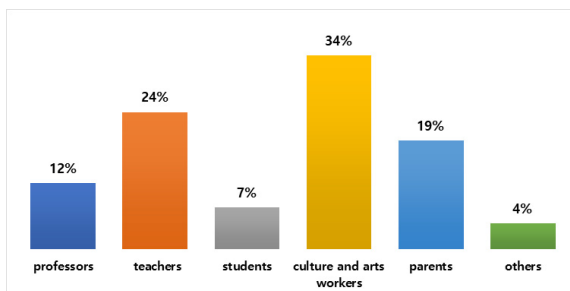
Text book	Content	Score
1-1 People	Song 1	Measure number 1-4
	E $\flat$, 4/4, 40 measure	
	Dotted notes, syncopation, tie, diminished interval, disjunct motion, accidental signature	Measure number 27-30
1-1 My country	Song 2	Measure number 5-8
	C, 4/4, One part form	
	staccato, slur	
2-1 I	Song 3	Measure number 1-4
	D, 4/4, 56 measure	
	Dotted notes, syncopation, tie, slur, low pitch(A3), incomplete bar	
2-1 Nature	Song 4	Measure number 1-4
	G, 4/4, Ternary form(13measure)	
	syncopation, disjunct motion, a note-marking problem	
3rd Grade Music Textbook	Song 5	Measure number 1-4
	C, 4/4, binary form	
	staccato, conjunct motion	
	* Beat	
	Song 6	Measure number 1-4
	C, 2/4, binary form	
	conjunct motion	
	* Pitch of Tone	

<Table 2>에서 제시한 제재곡은 노래부르기 활동으로 제시된 제재곡으로 한정하였고, ‘다섯 글자 예쁜 말’을 Song1, ‘우리나라’를 Song2, ‘소중한 꿈’을 Song3, ‘숲으로 가자’는 Song4, ‘새싹의 노래’는 Song5, ‘구슬비’는 Song6으로 표기하였다. 단, 3학년 교과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가 2025년부터 적용되므로 2015 개정 YBM 3학년 음악교과서를 참고하였으나 2015 개정과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학년군별 음악 요소가 같다는 점에서 비교의 근거가 충분하다. 또한, *로 표시한 Beat와 Pitch of Tone은 ‘박’과 ‘음의 높고 낮음’의 3·4학년군 음악 요소이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과에 수록한 제재곡은 음표, 조성, 박자, 음역대, 음정, 가락의 진행, 악곡의 길이, 셈여림, 빠르기, 가락의 복잡성 등 음악교육의 단계성과 체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통합교과의 영역과 주제에 적합한 악곡을 수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음악의 어법을 익히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학년군별 음악 요소를 명기하고 있고 이러한 음악 요소가 교과서에 구현된다. 이같이 음악학습의 체계와 위계가 없는 즐거운 생활과의 제재곡은 음악의 기초 개념 학습을 시작하는 3학년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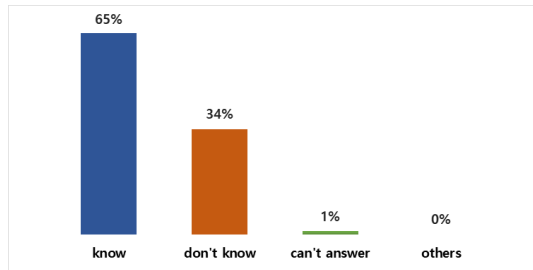
IV. 설문 조사 결과

본 연구는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교육과정 ‘즐거운 생활’에 편성된 음악 교과 교육 실태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조사를 위해 실시한 설문 결과는 총 9개 설문 문항의 각 항목에 대한 응답수를 전체 참여자 대비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설문 결과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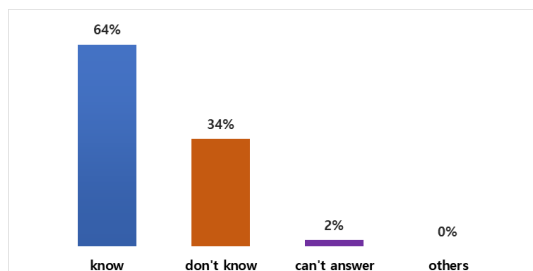
[Figure 2] Classification of social belonging communities of survey participants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총 1,179명은 문화예술에 종사자가 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교사 24%, 학부모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응답자 24%는 추가 설문 문항에서 교직 분류와 교직 경력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교사 24% 중에서 초등학교 교사는 59%, 중고등학교 음악 교사는 30%로 대부분의 교사 응답은 초등학교 교사와 중고등 음악 교사의 비중이 89%를 차지하였다. 이 밖에 원장-교장 5%, 원감-교감 2%, 중고등 비음악 교사 3%, 유치원 교사 2%로 교사 응답자 비중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교사 경력은 11~20년이 26%로 가장 많았으며, 1~5년 23%, 6~10년 22%, 21~30년 19%, 31년 이상 11%로 교사 경력 20년 이하 분류에는 비교적 고른 경력의 교사들이 설문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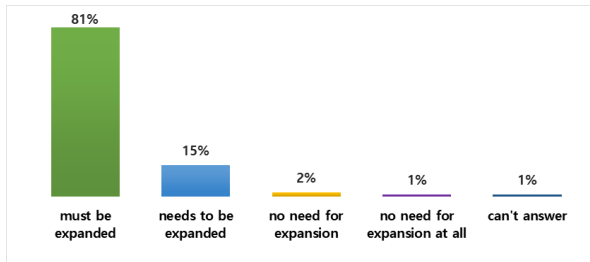
[Figure 3] Awareness of the absence of 'music' subjects for 1st and 2nd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전체 설문 참여가 가운데 65%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 분리된 음악 교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1년 고시된 제4차 교육과정에서 시작된 통합교과가 응답자들의 학령기가 해당되거나, 자녀 교육과 관련된 학부모, 교육-예술교육 관련 종사자의 구성이 높은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34%와 1%가 이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저학년 음악 교과 부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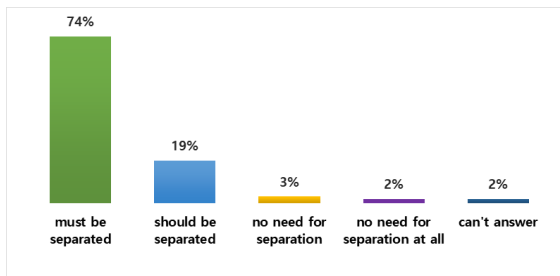
[Figure 4] Awareness of the integration of music subjects into 'pleasant life' for 1st-2nd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 음악이 즐거운 생활에 통합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설문 응답자 가운데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설문 문항에서 음악 교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문항에 대한 응답자와 유사 비율로서 문항의 신뢰도가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34%와 1%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음악 교과의 통합교과 편성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저학년 음악 교과 부재와 더불어 통합교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Figure 5]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proportion of music subjects in ‘pleasant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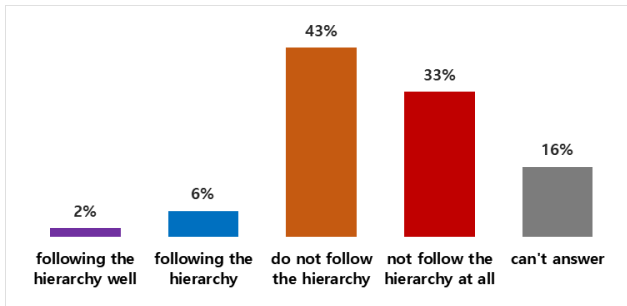
초등학교 저학년 ‘즐거운 생활’ 통합교과 교육과정에서 음악 교과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참여자 전체의 81%는 확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15%는 확대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중 96%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에 음악 교과 비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단, 4%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음악교과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음악 교과 확대를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6]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separating music as an independent subject in ‘pleasant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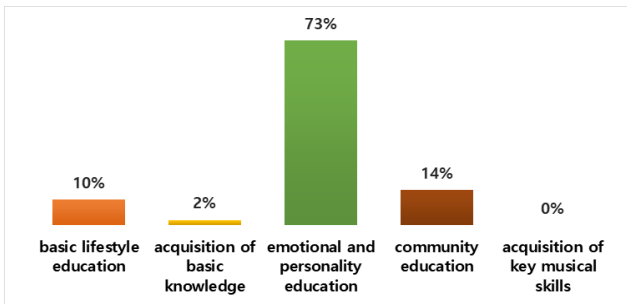
초등학교 저학년 ‘즐거운 생활’ 통합교과 교육과정에서 음악을 독립교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4%가 음악 교과 분리를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19%로, 총 93%의 응답자가 음악 교과의 분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즐거운 생활’ 통합교과 교육과정에서 음악 교과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참여자 96%가 동의한 것과 유사한 비율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즐거운 생활’ 통합교과 교육과정에서 음악교과의 비율을 확대하거나 음악교과의 분리 독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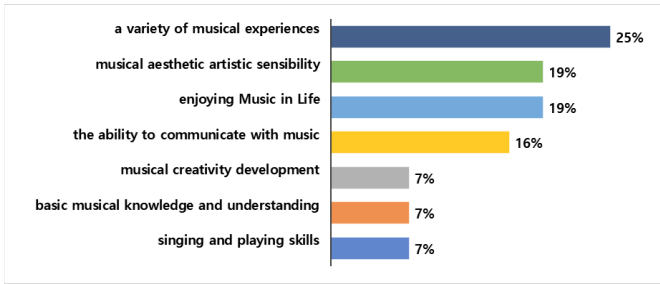
[Figure 7] Awareness of whether the music learning content reflects the hierarchy and framework of music education in ‘pleasant life’

‘즐거운 생활’에 편성된 음악 학습 내용이 음악교육 본래의 위계와 체계를 전체 응답자 중 76%는 따르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8%의 응답자들은 따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통합교과 교육과정에서 음악 내용이 음악교육 고유의 위계에 따라 구성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저학년 음악교육의 재구조화와 재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6%로 나타나 초등학교 저학년 통합교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또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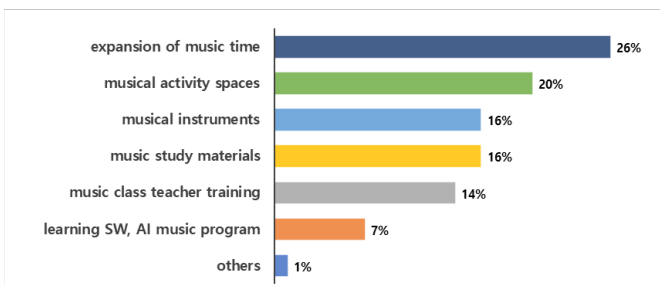
[Figure 8] Awareness of the school education most needed for 1st-2nd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게 가장 필요한 학교 교육에 대해 ‘정서 및 인성 교육’이 73%의 응답으로 가장 필요한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교육’이 14%, ‘기본 생활 습관 교육’이 10%의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초등학교 1~2학년에게 가장 필요한 학교 교육인 ‘정서 및 인성 교육’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음악 교과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Figure 9] Awareness of areas to be emphasized in music classes for 1st-2nd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음악 수업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25%의 응답자들은 ‘다양한 음악 경험’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음악 미적 · 예술적 감수성’이 19%, ‘삶에서 음악 향유’가 19%, ‘음악 공감 · 소통 능력’이 16%의 순으로 음악 수업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음악 창의성 개발’, ‘음악 기초 지식과 이해’, ‘노래하기 연주하기’는 7%의 같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응답 결과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음악 수업은 음악적 지식, 기능, 확장에 대한 중요성보다 음악 활동 과정에서 음악 듣고 느끼고, 표현하며 소통하고, 음악적 감수성을 경험하여, 음악을 생활에서 향유 방법을 학습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Figure 10] Awareness of what a music class needs if the music subject is separated from ‘pleasant life’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로부터 음악 교과가 분리되어 독립된 음악 수업이 이루어질 때, 음악 수업을 위해 '음악 시간의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26%의 참여자가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음악 활동 공간 마련' 20%, 음악 활동을 위한 '악기 지원'과 '음악 학습자료'가 16%, '음악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사 연수' 14%, '학생주도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음악 프로그램'이 7%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로부터 음악 교과가 분리되어 독립된 음악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음악 시간의 확대를 우선으로 학생들의 음악 활동을 위한 공간, 악기, 자료, 학습도구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중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V. 결론 및 제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청각각이 예민하게 발달하여 문화적이며 관습적 음악을 인지하고 음악적 요소를 표현하려는 욕구가 상승하며 다양한 음악적 능력이 현저하게 발달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음악 활동에 기반한 상호작용적 소통을 통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정서 교감이 이루어져 음악 교과 활동은 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여 타인과 교감할 수 있는 감성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감성역량을 핵심 역량 중 하나로 제시하며 음악의 아름다움과 정서 및 가치 인식 능력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 음악 교과가 통합교과 교육과정 '즐거운 생활'에 편성되기 시작한 이후, 교과 간 교육과정 통합 체제의 한계, 음악학습의 구조적 문제, 누리과정과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연계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음악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이 음악과 · 미술과 · 체육과의 교과 내용 연계가 아닌 '학습주제 중심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음악 교과 내용과 성격이 더욱 축소된 결과라 하겠다. 결국, 4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1~2학년 통합 교과는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교과 구성과 내용의 변화가 있었으나, 각 교과의 기본적인 성격과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통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과는 학생들의 발달단계나 음악적 경험을 고려한 음악 학습 내용과 교육 목표 명시가 부족하여, 1~2학년뿐만 아니라 학교 음악 교과 교육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등학교 저학년 음악과 교육은 음악과의 분리된 교과 구성이

필요하며, 학생 연령에 따른 인지발달과 음악적 능력에 적합한 교과 내용 구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초등학교 저학년 음악 교과의 독립과 학습 내용의 확대와 적절성의 고려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등학교 1~2학년의 통합교과 교육과정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재고와 각 교과의 개별성과 연계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편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앞으로 통합교과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에서 음악 교과의 강화 및 확대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에게 ‘정서 및 인성 교육’과 ‘공동체 교육’ 교육이 가장 필요한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음악 학습 활동이 음악 교과 교육 및 음악교육 고유의 위계와 체계에 따라 구성하고, 초등학교 1-2학년 음악 교과의 유연성 있는 재구성과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음악 수업은 음악적 지식, 기능, 확장에 대한 중요정보보다 음악 활동 과정에서 음악 듣고 느끼고, 표현하며 소통하고, 음악적 감수성을 경험하여, 음악을 생활에서 향유 방법을 학습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을 중점으로 계획 및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Ham, H. J. (2010). A study on the systematic appropriateness of elementary integrated subject pleasant life focused on learning music.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26(3), 147-161.
- Jang, G. J. (2014). An analysis of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text books based on integrated subjects of pleasant life.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20, 115-131.
- Jeong, K. S. (2023). Explanation of the 2022 revised elementary integrated curriculum: Focusing on the developer's perspective and the user's perspective.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17(2), 129-152.
- Jo, S. Y. (2023).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r elementary integrated subjects' for "Now-here-our life".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17(4), 135-166.
- Ju, D. C. (2024). *The necessity of music curriculum for lower elementary grades: Design, regression, vision* (pp. 1-17). Korea Music Education Society Spring Academic Seminar.
- Kim, E. J. (2018). Composition and music learning content of "Pleasant life", a subject in the 2015 revised integrated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6(4),

81-100.

- _____ (2019). Analysis on connectivity between “Pleasant life” and “Music” curriculum of elementary school. *Research in Music Pedagogy*, 20(2), 29-54.
- Kwon, D. W. (2018). Change of integrated subjects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Music Education*, 46, 29-53.
- Kwon, D. W., Seok, M. J., Choi, E. S., & Ham, H. J. (2017). *Foundations of music education* (ver. 4). Paju: Gyoyuggwahagsa.
- Lim, E. J., Kim, S. J., & Song, J. J. (2024). A critical review of organization and operation in the ‘Pleasant life’ subject: Focusing on the music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19(1), 55-78.
- Ministry of Education (1981).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No. 422). Seoul: Author.
- _____ (1987).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No. 87-9). Seoul: Author.
- _____ (1997).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explanation(II)* (No. 1997-15). Seoul: Author.
- _____ (2007).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explanation* (No. 2007-79). Seoul: Author.
- _____ (2011). *Disciplined life, wise life, pleasant life curriculum* (No. 2011-361 [Supplementary 15]). Seoul: Author.
- _____ (2022). *Right life, wise life, enjoyable life curriculum* (No. 2022-33 [Supplementary 15]). Sejong: Author.
- MOE (2024). Key policy initiatives for 2024. *MOE Work Plan*. Retrieved January 24, 2024, from <https://www.moe.go.kr/sub/infoRenew.do?m=031101&page=72759>
- Park, C. H. (2012). The history of integrated curriculum for elementary school in Korea.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6(1), 195-213.
- Park, S. Y., Lee, K. E., & You, J. A. (2004). The way to integrate and design the curriculum contents of pleasant life in elementary school. *The Journal of Curriculum & Evaluation*, 7(1), 87-106.
- Rho, J. H. (2016). Music education as healing - Based on audiation music activity. *The Korean Journal of Arts Studies*, 14, 33-51.
- Seung, Y. H., & Chung, J. W. (2021). *Music education psychology*. Seoul: Hakjisa.
- Swanwick, K., & Tillman J. (1986). The sequence of musical development: A study of children’s composition. *Britis Journal of Music Education*. 3(3), 5-39.
- Trainor, L. J. (1996). Infant preferences for infant-directed versus noninfant-directed playsongs and lullabie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9(1), 83-92.

- Yang, S. Y. (2022). Exploring the role of school music education as healing.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 6(12), 2354-2363.
- Yoo, J. S. (2005). An analysis of the content organization in integrated subjects of elementary school.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6(1), 143-175.